

“차기 정부, ‘대·중기 양극화·불균형 해소’ 급선무”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정책토론회
플랫폼 독점화·불공정 심화 지적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 개선 필요

내년 5월 출범할 차기 정부는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뜩이나 심각했던 이들 문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연 ‘위드 코로나시대,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해법을 제시하다’는 내용의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장기 메가트렌드로 ▲양극화 심화 ▲플랫폼 비대면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ESG·탈탄소 도입 본격화 ▲세계화·지역화 ▲인구조조 변화를 제시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45만명(2020년 1월)에서 128만4000명(2021년 9월)으로 11.4% 줄었다.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도 감소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수는 349만8000명(2020년 9월)에서 344만명(2021년 9월)으로 줄었다.

추문갑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이 위축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위드 코로나시대,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해법을 제시하다’는 내용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한병준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서강대 김용진 교수,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조봉현 IBK기업은행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중기중앙회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이 커졌다”면서 “플랫폼의 독점화로 소비자는 비용 부담이 늘었고, 입점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은 플랫폼 의존도가 더욱 늘었고 이에 따른 불공정거래 문제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의 경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다수 확보→시장 독과점→유료화 이후 수수료 인상→소비자와 입점업체 피해 영향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3.8%는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답했다. 45.3%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불공정 거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차기 정부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재기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불공정 거래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본부장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확대 및 수시지정제 도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인력 스카우트 책임분담금 제도 도입 등을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IBK경제연구소

장을 맡고 있는 IBK기업은행 조봉현 부행장은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지역간 격차는 코로나19 위기와 4차 산업혁명 등의 영향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균형 성장을 위해선 환경 변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6.8%를 창출하고 있다. 전체 기업의 99.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전체의 25.5%에 그치고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08개로 47.2%를 차지한다. 대·중소기업간 생산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조봉현 부행장은 “지역에 정착해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 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차기 정부의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부행장은 이와 함께 ▲기업승계로 신동력 창출 ▲중소기업 공정 복지 ▲청년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맞춤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한반도 중심의 신북방·신남방 선순환 구조 ▲중소기업 지원체계 혁신 등을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7대 혁신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또다른 토론자로 나선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

사는 “(차기 정부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여러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플랫폼의 독과점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상생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힘과 자원이 없다.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뭉쳐서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한 뒤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이 뭉쳐 정당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중기중앙회 한병준 부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불확실성을 만들지 말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를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는 기업인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경주(경북)=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휴넷벤처스, 소셜 스타트업 발굴 나선다

엠와이소셜컴퍼니와 협약
사회 문제 해결 위해 협업

휴넷이 설립한 휴넷벤처스가 엠와이 소셜컴퍼니(MYSC)와 손잡고 소셜 스타트업 발굴, 육성에 나선다.

17일 휴넷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소셜 벤처를 발굴하고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ESG 교육 시행 ▲글로벌 소셜 임팩트 스타트업 공동 발굴 ▲휴넷자회사인 탤런트뱅크를 활용한 스타트업 코칭 및 일자리 창출 ▲소셜 임팩트 스타트업 경진대회 공동 개최·투자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해나가기로 했다.

휴넷벤처스는 휴넷이 지난 8월 설립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이다. 에듀테크 및 교육, B2B 서비스, 소셜 임팩트 영역의 유망 기업을 발굴해 투자·

육성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MYSC는 2011년에 설립한 소셜 벤처 전문 임팩트 투자사이다.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투자 및 육성하고 있다.

휴넷벤처스 방승천 대표는 “휴넷의 에듀테크와 탤런트뱅크의 전문가 자문, 휴넷벤처스의 투자 등 다양한 방법



휴넷벤처스 방승천 대표(오른쪽)가 엠와이소셜컴퍼니 김정태 대표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휴넷

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한샘, 가구 새벽배송 시작

한샘이 서울지역부터 가구를 새벽배송한다.

17일 한샘에 따르면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온라인 홈인테리어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한샘몰에서 가구 63종을 대상으로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새벽배송 대상 가구는 토퍼 매트리스, 책상, 책장, 식탁, 선반장 등 고객이 직접 설치하는 DIY(Do It Yourself)가 대상이다. 가구는 낮 12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 일찍 배송한다.

새벽배송 서비스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한다. 이후 물류 시스템을 정비해 수도권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가구를 새벽배송함에 따라 맞춰야 가구, 1인 가구 등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상품 수령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새벽배송 서비스가 확대되면 고객 편의뿐만 아니라 배송 물류 효율도 약 2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샘 온라인사업본부 김태욱 상무는 “더욱 차별화된 온라인 홈인테리어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가구 새벽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갈등 해결 프로세스 방안 마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부산에서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와 직원 간 소통·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17일 소진공에 따르면 16일부터 진행한 이번 워크숍은 소진공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간관리자 리더십 강화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갈등 해결 사례를 공유해 관계 관리와 갈등 해결 프로세스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

워크숍에는 전국 70곳 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장, 6곳 지역본부 운영지원팀장, 대전의 소진공 본부 팀장 등 총 85명이 참석했다.

조봉현 소진공 이사장은 “참여 직원들이 공단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삼표 ‘블루콘 윈터’, 학회서 기술 인증

동절기 전용 콘크리트

삼표그룹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내한 콘크리트 ‘블루콘 윈터(BLUECON WINTER)’가 한국콘크리트학회로부터 기술인증을 받았다.

17일 삼표에 따르면 블루콘 윈터는 하루 최저기온 영하 10도까지 사용가능한 국내 유일의 동절기 전용 콘크리트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콘크리트 제품 중

가장 낮은 온도에서 완전한 강도 발현이 가능하다.

일반 콘크리트는 영하권 추위에 내부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압축강도가 떨어지고 균열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인위적으로 온도를 높이기 위해 갈탄을 태우는데, 갈탄이나 열풍기 없이도 단단히 굳는 블루콘 윈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승호 기자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수능 수험생에 “쌓여온 시간과 자신 믿길” 격려 /사진 뉴시스
▲ 대장동 수사 2라운드 돌입…‘50억 클럽’ 수사 본격화



▲ 우리나라도 30세 미만 ‘모더나 중단’…화이자로 접종 /사진 뉴시스
▲ ‘일상회복 이후’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 증가…뒤늦은 검사도 많아

▲ “지상파 방송 3사 수어통역 제공해야”…인권위에 차별 진정
▲ “좋은 일에 써 달라” 쌀 150포 익명 기탁자 누굴까…벌써 3번째